

제45호(2018. 2. 21.)

# 경영지표에 의한 식품제조업 경영실태 진단과 시사점

이용선 허성윤



목 차  
contents

1. 『기업경영분석』 조사개요와 경영지표 ..... 1
2. 식품제조업 경영성과 분석 ..... 3
3.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비교 ... 6
4. 식품제조업 경영규모와 R&D 및 광고 활동 ... 12
5. 요약 및 시사점 ..... 15

감 수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061-820-2326	lkilki@krei.re.kr
내용 문의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5호

### 경영지표에 의한 식품제조업 경영실태 진단과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요 약 Summary

- 2016년 식품제조업체는 전년에 비해 성장성이 둔화되었지만 높은 수준 유지, 수익성과 재무안정성도 개선되어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 4.9%, 6.5%로 과거 3개년 평균보다 높고 제조업 평균을 상회
  -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은 각 6.5%, 801.7%로 2010년대 들어 가장 양호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제조업 평균보다 열위이나 개선 추세
- 업종별 경영실적은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된 기타식품제조업이 가장 양호
  - 기타식품,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등 식료품제조업체(특히 기타식품제조업)가 음료 제조업체보다 성장성이 양호하고 수익성과 재무안정성도 전년보다 개선
- 기업규모별 경영지표 중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양호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우위
  - 중소기업 규모 식료품제조업체는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과 재무안정성도 전년보다 개선
- 경영실적 상·하위 기업 간 격차가 제조업 평균보다 더 큰 수준
  - 매출액증가율은 1분위와 3분위 기업 간 편차가 51%p로 크고, 영업이익률이나 부채비율 등에서 1분위 간 큰 차이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0.2~0.3%로 낮고 R&D 활동이 정체 상태
  - 식품제조업체의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중소기업이 0.47%로 대기업보다 높고, 업종별로는 식료품제조업이 0.32%로 음료제조업에 비해 우위
- 식품제조업은 최근 실물 투자가 둔화되고 R&D 활동도 정체되어 향후 성장 둔화 예상
  - 특히 알콜음료(주류)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저조하여 중장기 성장가능성은 저하
  -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식료품제조업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은 제고 전망
-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실물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필요
  - 미래 성장 분야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성장세 회복 가능
- 유망 업체·분야의 중소 식품기업의 재무구조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투자 지원 필요
  - 투자재원 조달 방식, 연구개발 추진 방식, 공동사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01 | 『기업경영분석』 조사 개요와 주요 경영지표

□ 이 원고는 기업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 1.1.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및 연혁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영리법인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
- 2011년부터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상법인의 신고자료에 첨부되는 재무제표를 이용함에 따라 업종별로 세분화되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승인번호 제30101호)

### □ 조사범위 및 대상

- 『기업경영분석』의 조사범위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통계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
  - 금융·보험업, 임업, 수도사업, 연구개발업, 공정위 지정 지주회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사회복지사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제외
-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기준 식료품제조업체 11,369개, 음료제조업체 653개 등 총 12,022개<sup>1)</sup>(이 중 대기업은 131개로 전체의 10.9% 차지)

〈표 1〉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업체 수(2016년 조사기준)

단위: 개

전 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615,316 (4,109)	137,818 (1,481)	11,369 (106)	653 (25)	477,498 (2,628)

주: ( ) 안은 대기업 수

자료: 한국은행(2017. 11.), 『2016년 기업경영분석』.

1) 2017년 11월에 최신 자료로 2016년 기준 데이터가 발표됨.

□ 조사방법

- 조사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업경영분석 편제 대상 업종별로 분류 및 집계하여 재무비율을 산출
  - 업종별로는 2008년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시계열의 연속성을 고려
  - 대·중소기업 분류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인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을 적용

1.2. 주요 경영지표

□ 본 원고에서 사용한 경영지표는 크게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재무안정성 지표, R&D 및 광고 활동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경영지표별 세부 지표는 아래 <표 2>를 참조

<표 2> 경영지표 산식과 설명

구분	지표명	지표 산식	지표 설명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 100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 유형자산 / 전기말 유형자산 × 100 - 100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 파악에 활용
	매출액증가율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
수익성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세전순이익 / 매출액 × 100	경영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 측정에 유용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00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의 창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 100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
	차입금의존도	장·단기차입금 + 회사채 / 총자본 × 100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
R&D 및 광고 활동	연구개발비대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광고선전비 비율	광고선전비 / 매출액 × 100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이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은행(2017. 11.), 『2016년 기업경영분석』.

## 02 | 식품제조업 경영성과 분석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

#### 2.1.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 2016년 식품제조업은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높아 성장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4.9%로 2015년 증가율 5.1%보다는 조금 낮지만 2013~14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전(全) 산업 평균(2.6%)과 제조업 평균(-0.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2015~16년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은 2013~14년간 빠른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3~14년 식품제조업체의 유형자산증가율은 각각 5.7%와 3.8%로 제조업 평균(4.8%, 3.2%)보다 높았음.
- 2016년 식품제조업체 총자산은 전년에 비해 6.5%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14년 보다 높고 전 산업(6.3%)과 제조업(5.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표 3〉 식품제조업체의 성장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업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증가율	전 산업	12.2	5.1	2.1	1.3	0.3	2.6
	제조업	13.6	4.2	0.5	-1.6	-3.0	-0.5
	식음료담배	12.0	9.4	2.1	3.7	5.1	4.9
	식료품	12.4	8.5	2.2	3.7	5.3	5.6
	음료	13.8	18.1	2.4	2.9	3.9	0.5
총자산증가율	전 산업	9.6	5.1	4.6	4.3	5.7	6.3
	제조업	10.7	4.6	5.6	4.0	3.7	5.1
	식음료담배	8.7	6.9	3.4	4.8	7.7	6.5
	식료품	11.7	7.3	3.1	5.5	7.5	6.3
	음료	-0.3	4.4	5.6	1.4	4.6	3.0
유형자산증가율	전 산업	9.2	6.5	5.6	4.1	6.5	4.6
	제조업	9.8	6.4	4.8	3.2	5.2	4.5
	식음료담배	4.8	5.3	5.7	3.8	6.4	4.2
	식료품	6.8	6.2	6.2	4.6	7.2	5.5
	음료	-1.2	2.8	2.9	2.5	4.7	2.7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 2016년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전년보다 낮고 타 업종에 비해서도 낮아 향후 성장성이 둔화될 우려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유형자산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4.2%로서 2013년(5.7%)과 2015년(6.4%)보다 낮고, 전 산업(4.6%)과 제조업(4.5%)보다 조금 낮은 수준
- 특히 음료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2.7%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 둔화 예상
  - 유형자산의 증가분이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를 나타내며, 투자 규모가 기업의 장래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 한편 식료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5.5%로 전 산업(4.6%), 제조업(4.5%)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2.2.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 □ 2016년 식품제조업은 이익증가율이 높고 이자율은 낮아 수익성 지표가 2010년대에 들어 가장 양호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5%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전년과 같고, 전 산업(5.5%)과 제조업 평균(6.0%)보다 높게 나타남.
  - 식료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전 산업(각각 5.5%, 5.0%)과 제조업 평균(각각 6.0%, 6.2%)에 비해 낮은 수준
  - 음료제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각각 10.7%와 9.2%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
-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0%로 2015년 5.9%보다 상승하였으며, 전 산업(5.0%)보다 높고 제조업(6.2%)보다 조금 낮은 수준
- 식품제조업체의 이자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801.7%로 2010년대에 가장 높고, 전 산업(440.1%)과 제조업(644.9%)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최근 이익 규모가 늘어나면서도 조달이자율은 낮게 유지되어 이자보상비율이 상승
  - 음료제조업은 2015년에 비해 3.2%p 하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72.2%로 매우 높은 이자보상비율을 기록
- 통상 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인 EBITDA 매출액비율(세전순이익+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매출액)은 식료품제조업이 2014년 6.4%에서 2016년 7.7%로 향상



〈표 4〉 식품제조업체의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업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영업이익률	전 산업	4.5	4.1	4.1	4.0	4.7	5.5
	제조업	5.6	5.1	5.3	4.2	5.1	6.0
	식음료담배	6.0	6.0	6.0	5.9	6.5	6.5
	식료품	4.1	4.0	4.0	4.1	4.5	4.7
	음료	11.7	11.5	12.4	10.0	11.5	10.7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전 산업	3.7	3.4	2.9	3.3	4.4	5.0
	제조업	5.2	5.2	4.7	4.2	5.1	6.2
	식음료담배	5.7	5.5	5.5	5.1	5.9	6.0
	식료품	3.8	3.7	3.7	3.3	3.7	4.6
	음료	10.1	9.0	11.8	9.2	11.0	9.2
이자보상비율	전 산업	279.9	260.0	283.9	284.5	353.3	440.1
	제조업	486.0	455.4	513.6	412.2	528.4	644.9
	식음료담배	522.4	509.2	579.1	601.7	761.3	801.7
	식료품	395.5	355.1	406.1	437.6	540.5	592.1
	음료	505.2	599.4	748.4	649.1	875.4	872.2
EBITDA 대 매출액	전 산업	8.1	8.0	7.3	7.7	9.1	9.5
	제조업	9.5	9.7	9.2	8.8	10.0	11.1
	식료품	7.0	7.0	6.9	6.4	6.9	7.7
	음료	17.2	15.6	18.1	15.4	17.1	15.4

주: EBITDA는 이자 및 법인 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되며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비해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용하게 쓰임.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2.3.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

#### □ 식품제조업은 재무안정성이 제조업 평균보다 다소 취약하지만 개선되는 추세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90.6%, 차입금의존도는 27.0%로 제조업 평균(각 79.8%, 23.6%)보다는 높지만 2010년대에 들어 가장 낮은 수준
  - 식료품제조업은 부채비율이 98.4%로 높은 편이나 2011년 114.6%에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부채비율이 84.8%로 식료품제조업에 비해 낮지만 등락을 거듭
  - 식료품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30.7%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며, 음료제조업은 24.0%로 전년에 비해 1.5%p가 상승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52.5%로 2011년 대비 2.6%p 상승

〈표 5〉 식품제조업체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업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채비율	전 산업	152.7	147.6	141.0	134.5	128.5	121.3
	제조업	109.2	101.0	92.9	89.2	85.5	79.8
	식음료담배	100.3	97.5	94.0	93.7	92.2	90.6
	식료품	114.6	111.3	104.3	106.0	102.7	98.4
	음료	90.7	87.5	94.2	86.8	87.0	84.8
차입금의존도	전 산업	32.2	31.9	31.5	32.2	31.5	29.9
	제조업	25.5	25.6	24.5	25.3	24.7	23.6
	식음료담배	27.2	27.3	26.4	28.2	27.6	27.0
	식료품	30.8	30.8	29.2	31.7	31.6	30.7
	음료	23.7	23.2	24.9	23.5	22.5	24.0
자기자본비율	전 산업	39.6	40.4	41.5	42.6	43.8	45.2
	제조업	47.8	49.7	51.8	52.8	53.9	55.6
	식음료담배	49.9	50.6	51.6	51.6	52.0	52.5
	식료품	46.6	47.3	49.0	48.5	49.3	50.4
	음료	52.4	53.3	51.5	53.6	53.5	54.1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03 |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비교

기타식품제조업의 경영실적이 양호, 성장성은 중소기업, 수익성과 안정성은 대기업 우위

### 3.1. 업종 간 비교

□ 2016년 성장성은 식료품제조업(특히 기타식품제조업)이 양호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부진

- 2016년 매출액증가율은 식료품제조업이 5.6%로 2015년 5.3%보다 상승하였으나 음료제조업은 0.5%로 전년 3.9%보다 크게 하락하여 대조적
-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과 기타식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7.4%와 7.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은 2015년 매출액증가율 8.7%에 비해 감소한 것이나, 기타 식품은 7.0%에서 소폭 상승
  - 기타식품에는 가정간편식(HMR), 건강기능식품, 소스류 등이 포함

-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유형자산증가율은 기타식품제조업이 6.5%, 비알콜음료제조업이 7.2%로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의 성장잠재력을 시사함. 한편 알콜음료는 유형자산이 전년보다 2.1% 감소하여 성장가능성이 저하

〈표 6〉 식품제조업 업종별 성장성 지표

단위: %

업종별	2015			2016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식품	5.3	7.5	7.2	5.6	6.3	5.5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8.7	10.4	8.8	7.4	7.5	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2.2	6.0	2.9	3.2	6.5	3.5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3.6	0.4	2.6	-1.0	-0.2	3.5
기타 식품	7.0	8.7	8.3	7.1	7.7	6.5
음료	3.9	4.6	4.7	0.5	3.0	2.7
알콜음료	1.5	0.8	2.7	-0.6	1.9	-2.1
비알콜음료 및 얼음	6.1	9.4	6.6	1.4	4.3	7.2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수익성은 식료품제조업이 음료제조업보다 낮지만 상대적 격차는 감소

-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식료품제조업이 4.7%로 전년보다 0.2%p 상승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10.7%로 전년보다 0.8%p 하락
  - 식료품제조업의 세부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타식품제조업이 5.9%로 높은 반면,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과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은 낮은 편
- 이자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2016년에 식료품제조업이 592.1%로 전년(540.5%)보다 상승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872.2%로 전년(875.4%)보다 소폭 하락

〈표 7〉 식품제조업 업종별 수익성 지표

단위: %

업종별	2015			2016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식품	4.5	3.7	540.5	4.7	4.6	592.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2.9	2.5	319.5	3.1	2.6	377.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4.5	4.4	1,708.0	5.5	5.7	2,504.8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3.7	2.1	381.9	4.3	4.0	458.3
기타 식품	5.9	5.0	695.8	5.9	6.1	704.1
음료	11.5	11.0	875.4	10.7	9.2	872.2
알콜음료	16.4	16.1	923.6	15.1	14.3	937.8
비알콜음료 및 얼음	7.4	6.6	795.7	7.0	4.9	773.1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 재무안정성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2016년 부채비율은 식료품제조업이 98.4%이며 음료제조업은 84.8%로 전년보다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50.4%, 54.1%로 전년보다 상승
- 식료품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재무안정성은 유가공업과 기타식품제조업이 양호한 반면, 고기·과실·채소·유지가공업과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은 다소 부진

〈표 8〉 식품제조업 업종별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업종별	2015			2016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
식료품	102.7	49.3	31.6	98.4	50.4	30.7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66.7	37.5	43.4	161.5	38.2	42.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41.9	70.5	11.6	40.2	71.3	10.3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138.7	41.9	41.5	114.6	46.6	37.4
기타 식품	87.5	53.3	26.7	86.1	53.7	26.9
음료	87.0	53.5	22.5	84.8	54.1	24.0
알콜음료	91.0	52.4	21.2	83.6	54.5	21.4
비알콜음료 및 얼음	82.6	54.8	24.1	86.3	53.7	26.9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3.2. 기업규모별 비교

### □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

- 2016년 식료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이 각각 8.6%, 9.2%로 대기업의 3.0%, 2.1%보다 높은 수준
  - 음료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이 각각 3.1%, 5.2%인 반면, 대기업은 각각 0.1%, 2.2%
- 2016년 유형자산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전년처럼 높게 유지되었으나 대기업은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투자 활성화로 성장잠재력이 유지됨을 시사
  -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식료품제조업이 4.6%에서 2.1%로, 음료제조업은 4.7%에서 2.2%로 2.5%p씩 하락

〈표 9〉 식품제조업체 기업규모별 성장성 지표

단위: %

업종별	규모코드별	2015			2016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제조업	종합	-3.0	3.7	5.2	-0.5	5.1	4.5
	대기업	-6.2	1.9	3.6	-2.6	3.8	3.2
	중소기업	4.4	8.1	8.8	4.0	8.3	7.1
식료품	종합	5.3	7.5	7.2	5.6	6.3	5.5
	대기업	2.2	5.2	4.6	3.0	3.6	2.1
	중소기업	9.2	11.3	10.4	8.6	10.1	9.2
음료	종합	3.9	4.6	4.7	0.5	3.0	2.7
	대기업	3.1	4.0	4.7	0.1	2.4	2.2
	중소기업	8.7	8.4	4.7	3.1	7.0	5.2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 수익성 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

- 식료품제조업의 2016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5.4%)이 중소기업(3.9%)보다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대기업이 880.9%로 중소기업의 393.2%에 비해 2배 이상
  - 음료제조업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이 각각 11.6%, 1,075.6%
- 수익성 지표는 식료품제조업이 개선되고 음료제조업은 다소 낮아지는 등 업종에 따라 차이

〈표 10〉 식품제조업체 기업규모별 수익성 지표

단위: %

업종별	규모코드별	2015			2016		
		매출액영업 이익률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매출액영업 이익률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제조업	종합	5.1	5.1	528.4	6.0	6.2	644.9
	대기업	5.4	5.7	688.9	6.7	7.2	899.8
	중소기업	4.4	3.8	332.7	4.6	4.1	357.6
식료품	종합	4.5	3.7	540.5	4.7	4.6	592.1
	대기업	5.3	4.5	833.7	5.4	5.5	880.9
	중소기업	3.5	2.8	327.4	3.9	3.5	393.2
음료	종합	11.5	11.0	875.4	10.7	9.2	872.2
	대기업	12.4	12.1	1,055.1	11.6	10.0	1,075.6
	중소기업	6.4	4.9	305.2	5.4	4.3	255.4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아 우위

- 식료품제조업의 2016년 부채비율은 대기업이 70.3%로 중소기업 156.8%에 비해 낮고, 차입금의존도는 대기업이 22.4%로 중소기업 42.2%보다 낮은 수준
- 식료품제조업의 안정성 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음료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소폭 악화

- 음료제조업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6.2%로 전년보다 0.2%p 높고, 차입금의존도는 41.0%로 전년에 비해 0.4%p 상승

〈표 11〉 식품제조업체 기업규모별 안정성 지표

단위: %

업종별	규모코드별	2015			2016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제조업	종합	85.5	24.7	53.9	79.8	23.6	55.6
	대기업	70.3	19.6	58.7	63.5	18.1	61.2
	중소기업	135.3	36.8	42.5	132.6	36.0	43.0
식료품	종합	102.7	31.6	49.3	98.4	30.7	50.4
	대기업	75.6	24.0	56.9	70.3	22.4	58.7
	중소기업	165.4	43.3	37.7	156.8	42.2	39.0
음료	종합	87.0	22.5	53.5	84.8	24.0	54.1
	대기업	81.3	19.8	55.2	78.7	21.3	56.0
	중소기업	136.0	40.6	42.4	136.2	41.0	42.3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3.3. 분위별 비교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중위수와 평균이 비슷하지만, 1분위(하위 25%)와 3분위(상위 25%) 간 편차가 51.1%p 등으로 기업 간 성장성 편차가 제조업(48.3% 포인트)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 식음료·담배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이 -10.7%, 중위수(50%) 기업은 4.6%,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40.4%
  - 2015년 동일 분위와 비교하면, 중위수(50%)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소폭 감소하였고, 하위 25%와 상위 25% 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모두 소폭 증가

- 식음료·담배 제조업체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중위수는 0.0%로서 평균치 4.2%보다 낮아 절반 이상의 식품기업에서 신규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
  -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6.1%, 상위 25% 기업은 14.1%로 모두 전년 보다 상승하여 식음료·담배제조업체의 분포가 제조업 전체 분포보다 상향 이동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6.5%로 3분위수 6.6%와 비슷하며, 이는 전체의 75%에 가까운 업체의 수익성이 평균 수준을 하회함을 의미

- 식음료·담배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 -7.0%, 중위수(50%)에 해당하는 기업 2.9%,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6.6%로 상·하위 기업 간 편차가 큼.

- 2015년 동일 분위와 비교하면, 하위 25%와 50%, 상위 25%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

○ 식음료·담배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중위수(50%)에 해당하는 기업 255.2%,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1,464.2%로 평균치(801.7%)는 그 사이에 위치

**□ 2016년 식품제조업체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높아 절반 이상의 식품업체에서 재무안정성이 열위**

○ 식음료·담배제조업의 부채비율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이 78.3%, 중위수(50%) 기업이 45.1%,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은 65.6%로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 높은 편차

- 차입금 의존도는 하위 25% 기업이 15.2%, 중위수(50%) 기업 45.1%, 상위 25% 기업은 65.6% 수준

- 2015년 동일 분위와 비교하면, 하위 25%와 50%, 상위 25% 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모두 소폭 감소하여 안정성이 완화

〈표 12〉 식품제조업체 분위별 경영지표 비교

단위: %

업종별	분위수	2015		2016	
		제조업	식음료담배	제조업	식음료담배
매출액증가율	1분위	-16.2	-11.0	-16.3	-10.7
	2분위(중위수)	2.0	5.3	2.0	4.6
	3분위	33.1	39.6	32.0	40.4
	평균	-3.0	5.1	-0.5	4.9
유형자산증가율	1분위	-10.5	-6.4	-10.6	-6.1
	2분위(중위수)	0.0	0.0	0.0	0.0
	3분위	12.6	13.8	10.7	14.1
	평균	5.2	6.4	4.5	4.2
매출액영업이익률	1분위	-1.5	-7.9	-1.5	-7.0
	2분위(중위수)	3.9	2.7	4.1	2.9
	3분위	8.0	6.3	8.3	6.6
	평균	5.1	6.5	6.0	6.5
이자보상비율	1분위	*	*	*	*
	2분위(중위수)	298.9	222.9	327.7	255.2
	3분위	1,983.3	1,169.3	2,322.9	1,464.2
	평균	528.4	761.3	644.9	801.7
부채비율	1분위	66.3	79.7	63.3	78.3
	2분위(중위수)	172.6	205.5	167.0	200.7
	3분위	450.2	606.4	437.2	573.4
	평균	85.5	92.2	79.8	90.6
차입금의존도	1분위	8.8	15.7	8.2	15.2
	2분위(중위수)	36.3	45.4	35.4	45.1
	3분위	58.9	66.1	58.3	65.6
	평균	24.7	27.6	23.6	27.0

주 1) 연간 기업경영분석 편제대상 법인들의 재무비율을 각 비율별로 오름차순 정렬 후 25%(1분위), 50%(2분위, 중위수), 75%(3분위)에 해당하는 값

2) \*는 적자영업상태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2017. 11.), 『2016년 기업경영분석』.

## 04 | 식품제조업 경영규모와 R&D 및 광고 활동

식품기업의 경영규모는 음료제조업이 식료품제조업보다 대규모이며,  
식품제조업체의 R&D 활동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

### 4.1. 경영규모

□ 식료품제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9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규모가 영세

- 식료품제조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 등 경영규모는 음료제조업체는 물론 제조업 평균보다 영세
- 음료제조업은 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이 각각 167억 원, 18억 원, 122억 원으로 식료품제조업체의 2.1배, 4.8배, 4.8배이며 제조업 평균보다도 훨씬 큰 장치산업적 특징

〈표 13〉 업종별 주요 경영규모 지표(2016년 업체당 평균)

단위: 백만 원

업종별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제조업	12,078	724	4,995	6,133
식료품	7,912	371	2,517	3,429
음료	16,707	1,790	12,171	12,559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대기업은 업종 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의 업종 간 규모 편차는 적은 수준

- 대기업은 식료품제조업체가 매출액 4,501억 원으로 음료제조업체 3,732억에 비해 크지만, 영업이익과 유형자산은 식료품업체가 음료업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

〈표 14〉 기업규모별 주요 경영규모 지표(2016년 업체당 평균)

단위: 백만 원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제조업	740,321	49,842	309,895	346,995	4,167	191	1,683	2,430
식료품	450,107	24,133	136,964	177,332	3,751	147	1,252	1,793
음료	373,249	43,351	269,583	272,338	2,513	135	1,924	2,217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4.2. R&D 및 광고 활동

- 2016년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이 각 0.32%, 0.18%로 제조업 평균(2.2%) 대비 7분의 1 이하의 수준에 불과
  - 업종별 연구개발집약도는 식품업체가 0.32~0.38%, 음료제조업이 0.15~0.18%로 식품제조업의 R&D 활동이 음료제조업의 2배 수준
  - 식품제조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은 0.3~0.4%에서 정체되고, 음료제조업은 0.1~0.2%에서 정체

〈표 15〉 업종별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단위: %

업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1.55	1.72	2.04	1.97	2.05	2.15
식품품	0.32	0.32	0.32	0.34	0.38	0.32
음료	0.15	0.11	0.12	0.18	0.15	0.18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식품제조업체의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고, 식품제조업이 음료제조업보다 높은 수준
  - 연구개발집약도는 대기업이 0.15% 내외로 중소기업 0.5%에 비해 훨씬 낮아 대기업의 R&D 활동이 저조함을 의미
  - 식품제조업체의 연구개발집약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0.28%p 수준이지만, 음료제조업체의 규모별 차이는 0.41%로 대기업의 R&D 활동이 부진

〈표 1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단위: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제조업	2.25	2.43	2.58	1.27	1.28	1.33
식품품	0.27	0.32	0.19	0.45	0.46	0.47
음료	0.14	0.07	0.12	0.52	0.61	0.53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광고선전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식품제조업이 1.89%, 음료제조업이 6.65%로 제조업 평균(0.8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식품제조업의 2016년 광고선전비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08%p 상승한 것이며 최근 1.8~1.9% 수준을 유지
- 음료제조업의 2016년 광고선전비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56%p 하락한 것이며 최근 7% 수준에서 변동
- 업종별 광고선전비 비율은 음료제조업이 식품제조업의 3.5배 규모

〈표 17〉 업종별 광고선전비 비율

단위: %

업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0.51	0.57	0.46	0.70	0.76	0.82
식품	1.66	1.65	1.58	1.90	1.81	1.89
음료	5.65	5.47	5.44	7.15	7.21	6.65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광고선전비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높아

-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식품제조업체 3.0%, 음료제조업체 7.4%로 각 중소기업의 0.6%, 2.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광고선전비 비율이 음료제조 등의 대기업에서 높은 것은 단기적 시장 점유를 위해 R&D 활동보다 광고선전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타 제조업과 대조적
- 음료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대기업은 0.48%p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1.2%p 감소

〈표 18〉 기업규모별 광고선전비 비율

단위: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제조업	0.85	0.95	1.06	0.31	0.36	0.37
식품	2.84	2.87	3.04	0.47	0.51	0.60
음료	7.77	7.90	7.42	2.46	3.28	2.08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05 | 요약 및 시사점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상의 2011~2016년 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실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기업경영분석』에서 식품제조업의 조사대상업체 수는 식료품제조업체 11,369개, 음료제조업체 653개 등 총 12,022개임.

□ 2016년 식품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성장성 지표가 조금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지표도 소폭 개선되어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 (성장성) 매출액과 총자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각 4.9%, 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이는 과거 3년 평균보다 높으며,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유형자산증가율은 4.2%로 전년보다 2.2%p 낮아 자본투자 증가세가 둔화

- (수익성) 이익증가율이 높고 이자율은 낮게 유지되어 수익성 지표가 2010년대에 들어 가장 양호함.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매출액세전순이익률(세전순이익/매출액)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지만, 과거보다 개선되는 추세
- 이익은 증가하면서도 조달금리는 낮게 유지되어 이자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매출액/이자)은 801.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평균(644.9%)을 크게 상회

- (안정성)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제조업 평균보다 뒤지지만 소폭 개선됨.

-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

□ (업종 간 비교) 2016년 기타식품제조업체의 경영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성장성) 기타식품제조업과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의 성장성이 우수함.

-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업과 알콜음료업의 매출과 투자는 부진
-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은 투자 수준이 유지되어 향후 매출 증가 기대 요인

- (수익성) 식료품의 수익성이 음료에 비해 낮지만 전년보다 개선됨.

- 기타식품과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업은 수익성이 높으며, 전년보다 개선

- (안정성) 식료품과 음료제조업 모두 재무안정성이 소폭 개선됨.

#### □ (기업규모별 비교)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우월, 수익성과 안정성은 대기업이 우위

- (성장성) 식료품제조업의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높게 유지된 반면, 식료품·음료 대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됨.
  - 특히 중소기업 식료품제조업체의 투자 지표가 양호하여 향후 성장가능성 시사
- (수익성)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양호함.
  - 수익성 지표의 변화는 규모보다 업종에 따라 좌우
- (안정성) 재무안정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양호함.
  - 안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음료제조 중소기업에서는 소폭 악화

#### □ (분위별 비교) 식품제조업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 경영지표가 상·하위 기업 간 큰 차이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은 1분위와 3분위 기업 간 편차가 51%p나 됨.
-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치가 3분위 기업과 비슷하여 기업 간 수익성 편차가 큼.
- (안정성)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중간값(중위수)이 평균값을 상회함.

#### □ (경영규모) 식료품제조업에 비해 음료제조업의 경영규모가 훨씬 큰 수준

- 음료제조업은 식료품제조업보다 매출, 유형자산 등의 경영 규모가 큰 업종임.
- 업종 간 경영규모의 차이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지만 중소기업은 적은 편임.

#### □ (R&D) 식품제조업체의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

- 식품제조업체의 연구개발집약도는 0.2~0.3%로 제조업 평균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함.
- 업종별 R&D 투자는 식료품제조업이 음료업보다 활발하나 집약도가 0.32% 수준임.
- 기업규모별 R&D 활동은 중소 식품업체가 대규모 식품업체보다 활발하나 연구개발집약도는 0.47% 수준에 머무름.

#### □ (광고) 식품제조업체의 광고선전비 비율은 제조업보다 매우 높지만 완만한 하락세

- 식품제조업체의 광고선전비 비율(광고선전비/매출액)은 제조업 평균의 2.5~8배 수준임.

-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음료제조업이 6.65%로 식료품제조업의 3.5배 수준임.
- 대기업은 광고선전비 비율이 식료품 3.04%, 음료 7.42%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중소기업의 5.1배, 3.6배로 광고선전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임.

#### □ 향후 식품제조업의 성장 둔화 예상

-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기조이며, 식품제조업체는 실물투자가 둔화되고 R&D 활동도 정체되어 있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음.
  - 2015~16년 식품제조업체의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2012~15년간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개선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
-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식품업체의 경영에 도전 요인이 될 것이며<sup>2)</sup>,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업체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중장기 성장세 유지 위해 대기업의 투자 확대 필요

- 대규모 식품제조업체는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음.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 모델 발굴과 투자 확대가 요구됨.

####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망한 업체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발굴 및 투자 지원 필요

- 유망한 업체·분야에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중소 식품업체의 투자와 연구개발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나 재무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음.
- 투자재원 조달 방식, 연구개발 추진 방식, 공동사업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 이용선 외. 2017. 11. “2018년 식품산업 전망” 『식품외식전망대회발표집』.